

■ 편집인의 글

연구의 ‘시의적절성’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 개발 연구가 촉각을 다투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의적절성이 생명입니다. 현실 사회를 연구대상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을 표방하는 사회정책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우수한 사회과학 저널들에서 발빠르게 코로나19와 관련된 연구를 공모하고 우선 게재하는 흐름도 바로 시의적절성을 포착하려는 노력입니다.

문제가 심각할수록 원인을 바르게 진단하고 적용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시의적절성은 더욱 중요해지만, 문제는 사회과학에서 현실의 데이터를 모아 문제를 찾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은 더 많은 제약과 지난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입니다.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과 문제의 중첩성이 현실에 복잡성을 더합니다. 사회정책 연구에서 시의적절성은 그만큼 어려운 과제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목도하는 사회적 문제들이 과연 새로운 현상일까요. 지난 9월 중순, 인천의 한 기초생활수급 가정에서 어린 초등학생 형제가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라면을 끓이다가 크게 불이 나 중태에 빠진 일이 있었습니다. 빈곤과 안전하지 않은 주거환경, 아동학대와 돌봄 공백이라는 중첩적 문제가 팬데믹으로 인한 학교 공백과 맞부딪혀 나타난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가정의 복합적인 위기 증후는 팬데믹 이전에도 이미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재난의 위기는 사회의 약한 곳으로 집중되고, 경제·사회·심리적 문제들을 결합시키면서 우리 사회의 감춰져 있던 취약지점을 증폭시키고 드러내보일 뿐입니다.

마침 지난 8월 OECD는 코로나19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각국의 정책적 관심이 시급하다는 점을 환기한 바 있습니다. 이때 근거로 제시된 현황 자료들은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데이터가 아니라, 기존에 이미 제시되었던 사회문제 데이터들이었습니다. 이미 사회

정책에서 꾸준히 짚어오고 있는 소득과 일자리의 안정성 문제, 돌봄과 교육의 격차, 주거환경의 불평등이 코로나 상황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증폭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정책 연구의 시의적절성은 사회문제의 본질을 충실히 다루고 그 해결책을 신중히 고민하는 그 모든 시간과 연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사회정책 연구자들이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현재의 팬데믹 상황을 해석하고 시의적절한 대안을 모색하는 일에 더 부지런한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한차원 더 시의적절하게 소통하고 교류하는 장이 될 수 있기 위해, <한국사회정책> 제 27권 3호에 또하나의 새로운 시도가 시작됩니다. 우리 학계의 저명한 연구자들이 최근 사회정책 연구에서 의미있는 책을 골라 소개하는 서평을 신습니다. 첫 시작으로 양재진 교수님이 Philipp Rehm의 “위험 불평등과 복지국가: 사회정책 선호, 발전과 역동 (Risk Inequality and Welfare States: Social Policy Preferences, Development, and Dynam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을 소개해주셨습니다.

이번 호에는 여섯 편의 의미있는 연구들이 게재되었습니다. 먼저 “제도내 활동가와 내-외부자 협력의 복지정치: 서울시 청년수당정책 정책결정과정 분석” (김영순·이태형)은 서울시 청년수당의 도입과정을 ‘제도내 활동가론’의 이론적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입니다. 제도 내 활동가의 역할을 통해 제도와 내-외부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복지정치가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하는 한편, 한국의 복지정치에서 노동시장 외부자인 청년을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운동의 가능성을 제기함으로써, 한국의 복지정치에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시의적절한 화두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생애선택기간 기본소득의 제안: 전환기 적극적 시민을 위한 안전장치” (석재은)는 현재를 ‘전환기로 규정하면서, 전환기에 적극적, 도덕적 시민을 위한 안전장치이자 그것을 지향하기 위한 넛지 정책으로서 ‘생애선택기간 기본소득’을 제안하는 연구입니다. 소득보장제도의 혁신을 두고 백가쟁명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새로운 시각을 제기하는 시의성 있는 연구로 평가받았습니다.

“한국사회의 질에 대한 인식과 생활만족” (최유석·최창용) 연구는 ‘사회의 질’ 연구의 이론적 흐름을 따르되, 사회의 질에 관한 인식이 개인의 생활만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의 연관성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독창성을 갖습니다. 연구 결과 사회의 질에 대한 하위 요인 중에서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이 생활만족도와 관련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성 재가 요양보호사의 산재안전망 경험에 대한 연구: 산업안전보건 및 산재보험 제도를 중심으로” (박고은)는 여성 재가 요양보호사의 산재적용에 대한 경험연구를 질적으로 수행한 연구로서, 사전예방과 사후보상의 측면에서 구분하여 노동의 특성과 인적 특성이 결합되어 발

생하는 산재안전망으로부터의 배제 경험을 적절하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자 귀환이민 의향 결정요인: 호주 한인 사례” (정용문)은 최근 한인들의 국제 인구 이동에서 학문적 주목을 받고 있는 현상 한인 이민자들의 귀환이민을 다룬 경험적인 연구로서, 국제이주와 해외거주 한인에 관한 연구의 흐름에서 볼 때 차별성과 시의적절성이 있다고 평가됩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정책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은 주제인데, 이 연구는 이민자들의 귀환 의향에 차별과 사회보장제도 등의 구조적 요인이 작용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이민자 지원 체계 및 다문화 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과 미래 노인의 불평등 추이에 관한 연구: 코호트별 소득과 자산을 중심으로” (최승훈·민수빈·이예인)는 현 노년세대와 미래 노인세대인 베이비붐세대를 세 개의 코호트로 구분하여 생애과정적 관점에서 누적불평등 가설을 바탕으로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입니다. 노년기 불평등 문제의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성과 사회정책적 함의가 높다고 인정됩니다.

이번 호도 투고부터 심사와 발간의 모든 과정에서 학계의 신진연구자부터 학계의 흐름을 선도하는 연구자까지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장막에서 무기명으로 허심탄회하게 이루어지는 흥미롭고 시의적절한 학술적 논의과정을 지켜보는 경험이 참 귀하고 값 집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정책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시의적절한 논쟁을 기대합니다.

2020. 9. 30

한국사회정책 편집위원장 김수완